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305호

2026년 7월 19일(가해)

미사 안내	평 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 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서상순 안나 (808) 285-2379			



오늘의 미사

연중 제16주일

▶ 1독서 : 지혜서 12,13.16-19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 화답송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2독서 : 로마서 8,26-27	▶ 복음 : 마태오 13,24-43

성가 ▶ 입당 : 31 ▶ 봉헌 : 511,512 ▶ 성체 : 162 ▶ 파견 : 61

① 7월 19일은 피터 앤 폴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② 7월 19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③ 7월 봉성체 안내

7월 봉성체는 7월 16일(목, 오전) 서쪽 지역, 7월 17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④ 7월 28일(화) 오전 10시 미사 없습니다.

⑤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7월 19일~25일)

⑥ 매월 넷째 주 7월 25일(토), 26일(일) '한끼 나눔'



사목공지



사목위원회

① 2027년 예비 신자 모집

2027년 3월 27일 세례식~부활성야

교육기간 : 2026년 8월 2일~2027년 3월 27일

② 예비신자 첫 모임 공지

일시: 7월 25일(토) 오후 2:00

장소: 새신자 교리실(모임 후 4시미사 참석)

예비 신자 소개와 성당 안내, 교리교사 참석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역 및 단체

① 연령회 모임

일시: 7월 19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② 알라모아나 구역 모임

일시: 7월 25일(토) 오후 6시

문의: 김엠마 228-0088

③ 마우나아케아 구역 모임

일시: 7월 25일(토) 오후 2시

문의: 김카타리나 381-7858

④ 와이파후 구역 모임

일시: 7월 26일(일) 오후 5시

문의: 안마르첼라 391-8347

⑤ 하와이카이 구역 모임

일시: 7월 26일(일) 오후 6시

문의: 김글라라 349-2654

⑥ 소공동체 구역장 모임

일시: 7월 26일(일) 교중미사

장소: 새신자 교리실

■ 故 유유자 헬레나 자매님께서 7월 7일 선종하셨습니다.

성당 연도: 7월 19일(일) 교중미사 후

장례미사는 추후에 공지 하겠습니다

자매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레지오 마리아 33일 봉헌 기도안내

봉헌기간: 7월 13일(월)-8월 14일(금) 문의: 레지오 마리아

봉헌미사: 8월 15일(토) 오후 4시 미사

성모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자신을 봉헌 하기 위한 33일간의 영적 준비 여정입니다. 33일 봉헌기도책이 없으신 분들은 매일 가톨릭 굿뉴스 Maria.catholic.or.kr의 기도 지침과 www.mariatourusa.com 자료를 참고하여 개인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성당 게시판”은 신앙에 관련된 것만 게시 합니다.



헌금

8월 1/2일 Catholic Charities Hawaii 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7월 11일/12일: \$6,395				지난주 미사 참례자 총 294명
	주일헌금	교무금	2차헌금	특별헌금	
	\$3,637	\$2,580	-	\$178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 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STEADY AUTO 유럽차 정비 전문가 문의:808-772-2271 European car specialist	

기타공지

※ 미사 해설 - 성찬 전례(7) : 감사 기도에 대해서 (1)

모든 신자들이 마음을 모아 “거룩하시도다”를 부르고 나면, 본격적으로 축성 기도문으로 들어갑니다. 사제는 교우들에게 주님께 마음을 들어 높이도록 초대하였고, 온 공동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장엄 기도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교우는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하느님의 위대하신 업적을 기억하며 제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감사 기도는 감사송 전에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말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마침 영광송 이후 공동체가 “아멘”이라고 응답하기까지를 말합니다. 감사 기도의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 중에 빵과 포도주 잔을 들고 성부께 바치신 찬양 기도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풍습에서 빵과 포도주 잔을 들고 축복 기도를 바치던 것을 초기 교회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찬양 기도 (에우카리스티아-eucharistia)로 바꾸어 사용하며, 오늘날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감사 기도는 감사와 축성의 기도문으로서, 미사성제의 중심이요 정점입니다. 이 기도의 뜻은 교우들의 집회가 하느님의 위대하신 업적을 찬양하며 제사를 봉헌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78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78. 이제 미사 거행 전체의 중심이며 정점인 감사 기도가 시작된다. 이 기도는 감사와 축성의 기도이다. 사제는 교우들에게 기도와 감사로 주님께 마음을 들어 올리도록 초대하고, 자신의 기도에 교우들을 참여시켜 공동체 전체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를 바친다. 이 기도의 뜻은 신자 회중이 모두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하느님의 위대하신 업적을 찬양하며 희생 제사를 봉헌하는 데 있다. 감사 기도는 모두 공경하는 마음으로 침묵 가운데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 기도의 2가지 중요 요소는 감사와 축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기도문과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감사를 봉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은 분명하게 “침묵 가운데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제시함으로써 이 기도문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우들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집중하여 이 기도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알아둡시다

※ 연중 16 주일

"오늘 전례는 하느님의 자비와 기다림을 보여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죄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오래 참아 기다리십니다.

복음의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주인은 가라지를 당장 뽑지 않고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현재의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변화와 회개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으시는 분임을 알려 줍니다. 베드로, 바오로, 성 아우구스티노처럼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은 그 자비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초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도 선과 악, 사랑과 미움, 믿음과 불안이 함께 존재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좋은 씨앗이 자라도록 인내하며 기다려 주십니다.

이어지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느님 나라와 신앙의 성장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시작됨을 가르쳐 줍니다. 짧은 기도, 작은 친절, 인내와 나눔 같은 작은 실천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큰 열매를 맺습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기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기보다 기다려 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자신에게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과 누룩 같은 작은 사랑을 꾸준히 실천할 때, 하느님께서 그것을 크게 자라게 하시어 마침내 우리를 당신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권지훈 베드로 신부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피아노 개인 레슨

모든 연령대 레슨 가능
문의:허은혜 레지나 401-871-2681
Lynnpiano123@gmail.com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